2024년 6월 23일(주일) 제168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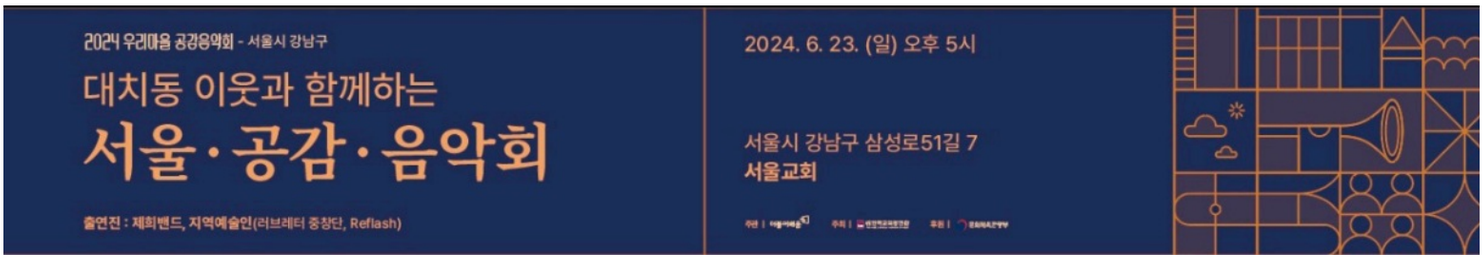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 울 교 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2. 다시 교회로(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2024 홍해작전 감사예배 서울공감음악회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찬양예배 후 '서울공감음악회'

6월 6일(목)부터 달려온 2024 홍해작전이 은혜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신 목사님과 이른 새벽부터 기도로 준비하신 홍해작전 섬김위원들 그리고 새벽을 깨우며 교회로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예배 시 '2024 홍해작전 감사예배'와 찬양예배 후에는 '서울공감음악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이 참석하셔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을 올려 드리는 기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다!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교회 첫 출석 아기 축복기도

지난주 2부 예배 시 교회 첫 출석 아기 축복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9교구 김원준 성도·신지선 성도 아기, 조부모:김정훈 안수집사·김희정 권사, 증조모:이순례 은퇴권사)

2024년 6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6월 16일 주일 찬양예배 시 2024년 세 번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 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해 짝수 달(격월) 셋째 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천국시민 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 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 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 위원회 세례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세례자

이하린 계 1명

수요 1부 찬양을 담당하는 호산나찬양대(대장:정승자 권사)에서 함께 할 찬양대원을 찾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1991년 11월 24일 창간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copyrights ⓒ seoulchurch, all right reserved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tel :(02)558-1106 fax : (02)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일 4:7-13

손달익 위임목사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인 샬롬은 단순히 폭력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 긴장과 대결 의식이 사라진 공존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이 평화를 약속하셨고 평화를 축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날에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요 14:27)고 하셨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 곁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20:19)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실천입니다. 정의가 없는 사랑은 무례함과 혼돈을 초래하고 무질서가 난무하게 됩니다. 반면 사랑 없는 정의는 사회적 폭력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18세기부터 시작된 근대화의 과정에서 많은 이념들이 등장했습니다. 모든 이념들이 인류사회의 새로운 살 길과 행복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념도 사랑이 배제되었을 때 모두 폭력적으로 변했고 수많은 숙청과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참 사랑을 만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고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사랑의 실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겸손의 자아인식과 태도로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겸손은 자기 낮춤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이웃을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에서
참 사랑은 출발합니다

1. 하나님 사랑은 겸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자세이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모든 태도의 근본은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이 겸손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집착이 되거나 자신이 자비와 지혜를 베푸는 듯한 교만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님의 겸손을 만나게 됩니다.(막 10:17-18)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롬:10)고 했습니다. 바울은 매우 엄격한 분이어서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은 결코 의인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고전 3:18)와 같고 죄인의 괴수(딤전 1:15)라고 했습니다.(롬 3:10) 이런 자기 겸손의 자세는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게 만듭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의 죄인이라는 겸손한 자기 발견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이해하는 사랑과 포용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 위에서 군림하지 않으셨고 일방적인 비난과 정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고정된 인격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비난받을 일을 한 사람에게도 평생 그렇게 살 사람으로 결코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자처하셨습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사람이 무례하게 됩니다. 무례한 것, 예의에 어긋난 것은 범죄라 하긴 어려우나 주변 모두를 매우 불쾌하게 합니다. 겸손한 자아인식과 태도로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을 교회일치의 원리로 제시하시면서 겸손의 표본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겸손은 자기 낮춤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이웃을 존중하는 겸손한 자세에서 참 사랑은 출발합니다.

2. 하나님 사랑은 실천입니다

본문 9, 10절은 하나님 사랑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일입니다. 즉 구유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이 이론과 명상 속에 환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이며 역사적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사람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것이나 그가 세상에 계신 것은 허구이거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였습니다. 이단들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3절)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사건은 그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실천 현장이 있는 현실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가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며,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역사이며 실천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이 실천 현장이 없는 사랑을 가리켜 우리는 종교적 위선이요 허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11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셨으니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사랑과 정의의 실천을 매우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신 26:12) 하나님은 3년에 한 번은 모든 소산의 십일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이 성경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3.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사랑의 참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이 역사 현장에서 실제의 삶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힘써 하나님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각자 삶의 형편이 다르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래가 있고, 또 이기심이라는 원죄에 가까운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버려두면 언제나 이기적 본능의 욕구대로 회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St. Augustinus는 이기심을 원죄에 가장 가까운 죄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부패와 충돌과 갈등이 있는 곳에는 이기심이 뿌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13절)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신앙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할 수 있고, 신앙을 실천할 능력도 생깁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열거하면서 첫 번 열매로 사랑을 말씀합니다.(갈 5:22) 사도 바울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난무하는 욕심의 횡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거친 문화 속에서 배려와 긍휼과 포용을 실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용서, 긍휼, 관대함, 포용 등이 넘치는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것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으로 살아갑시다.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거나 대적하지 맙시다. 언제나 성령 친화적 삶을 유지합시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사랑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겸손합시다.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김형상 안수집사
(2024홍해작전
동원분과장)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이어온 홍해작전 기도회가 시작되어 한 주간의 특별새벽기도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종갓집 장손으로, 조상 제사를 모셔야 하기에 교회만은 절대 갈 수 없다고 버티던 나는 사무실 개업식 때, 아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 일행이 축복기도를 해주고 다녀가신 이후 그 답례로 딱 한 번만 교회에 출석해 달라는 간곡한 권유에 못 이겨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출석 첫날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며 나는 깊은 감동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곱고 은혜스럽던지 그날 이후 한주도 빼놓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이후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사회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였습니다. 회사 상호를 “조이(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로 바꾸며 예수님을 제일로 섬기기로 했고 직원을 채용할 때도 크리스천이라면 무조건 OK였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때 왜 하나님을 늦게 만났을까 안타까워하며 모태 신앙인들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교회의 흔들림과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기 시작했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고 듣지 않아야 할 말들을 들으며 크리스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기도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친형제처럼 지내던 교우와 헤어져야 하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서 낙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교회는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우리에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압니다. 아직까지 마음속의 생채기가 남아 있다면 이제 모두 털어내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기도하는 일입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던 그때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17일간의 홍해작전기도회는 끝났지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라는 마음과 낮은 자세로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를 건너며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하며 계속 전진하길 기도해 봅니다. 아울러 오늘 저녁 5시 진행되는 2024 홍해작전 마지막 프로그램인 “서울공감음악회”를 통해 새로 초대되는 이웃들이 저처럼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서울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부흥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하면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사진으로보는2024 홍해작전

사진:이승준 안수집사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인도 사역!

존경하는 손달익 위임목사님과 교역자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이제 인도는 무더위 속에서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기도 하지만, 더위를 피할 수 없는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도의 경직된 정치와 종교의 구조는 기독교 선교를 박해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인도의 영혼들이 더 깊은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 지리라 믿습니다.

기독교의 선교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보고해 드립니다.

1. 나갈랜드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인도 북동부 나갈랜드 신학교는 현재 90여 명의 신학생들과 20여 명의 교수진이 최선을 다해 미래의 목회자들과 교회 개척자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매일 기도와 말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 차티스가르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소나 목사가 학장으로 사역하는 인도 중부 차티스가르 신학교는 현재 55명의 신학생들과 10여 명의 교수진이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3. 메갈라야 교회 후원 및 기도회

조범연 선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메갈라야 교회의 야유회 및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100여 명의 메갈라야 기독교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아쌈 스카이샘 미션학교 운영

조범연 선교사는 인도 아쌈의 산골마을에 미션학교를 설립하여 약 2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미래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5. 네팔 비란트나가르 NNCC 신학교 강의

인도북부와 네팔 경계지역인 비란트나가르에 위치한 네팔선교의 비전을 가진 NNCC 신학교에서 신대원 과정의 '선교 신학' 과목을 강의 차 방문하였습니다.

이 신학교는 본교단의 권승일 목사님이 2012년도에 한국교회의 도움으로 설립한 신학교인데 현재 50여 명의 신학생들이 공부하며 네팔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범연 선교사는 나갈랜드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6. 인도 뿌네 UBS 신학교 졸업식

조범연 선교사는 인도 UBS 신학교에서 선교학과 학과장으로서 인도 신학교 교수요원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 200여 명의 졸업생들을 배출하여 각각의 인도 교회의 목회자와 신학교의 교수요원 그리고 선교단체에서 사역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7. 서울교회 장학금 신학생들에게 수여

서울교회는 전반기 장학금 수여식에서 나갈랜드 어메이징 그레이스 신학교 신대원 2명의 신학생들에게 1년치 장학금 72만 원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직도 많은 신학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교회의 장학금 수여는 많은 신학생들에게 큰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8. 교회건축 진행 중

9. 결어

하나님께서는 인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역자를 양성하는 사역이야말로 선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선교회들과 인도선교회를 통해 설립된 2곳의 신학교에서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가정교회와 대나무교회 그리고 벽돌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을 통해 인도선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심에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도 신학교에서 조범연 선교사

10강 : 중보자의 조건 (1)

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는데, 갖추어야 할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든 또는 해야 하는 일이든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남성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군에 입대하는 일은 '해야하는 일'이지만, 신체검사를 통해서 건강에 이상이 없어야 입대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말하자면, '신체건강'이 자격조건이 됩니다. 신체건강이라는 조건은 태어나면서 결정되는 부분도 있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운전면허, 교사자격증이나 의사면허 등 특정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또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증들 가운데는 없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운전면허나 의사면허의 경우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에 자격증이 없거나 취소되면 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고 맡겨서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다루게 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일도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며 아무에게나 맡길 수도 없고 맡겨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과연, 중보자의 자격조건 3가지가 무엇인지 16문부터 18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본 후에 19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6문 :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답:**하나님의 의는 죄지은 인간이 죗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문부터 18문까지의 질문들은 중보자의 조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중보자의 조건은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입니다.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라는 조건을 가장 첫 번째 자격조건으로 내세운 이유가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의와 구약의 제사제도"를 함께 생각해 보면 비교적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제도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결국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계명을 그릇 범한 인간들이 그 죄를 속할 수 있도록 제사제도를 마련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제사제도의 정신에 대해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1-4)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인간은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직접 짐승을 잡아 죽이는 제사 준비 과정을 통해서 짐승의 울부짖음, 사방으로 튀는 피, 동물의 시체 등을 오감으로 느끼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을텐데 인간들의 범죄로 애꿎은 짐승들만 죽어갔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죄 값을 치룰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자신의 죄 값을 치를 뿐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을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17문 :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답:**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중보자의 두 번째 조건은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중보자는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하고 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물며, 제사에 사용되던 비둘기나 양이나 소와 같은 짐승이겠습니까? 제사에 사용되었던 짐승의 피도 사실상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짐승이나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 줄 뿐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인간들의 범죄와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는 결국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의 멸종으로 끝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에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하는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진노의 짐이라는 것도 과거와 현재의 죄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해야 합니다. 미래의 죄까지 포함되지 않으면, 진노의 짐을 지는 일이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이 무거운 죄악의 짐을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신성을 가지신 분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온전히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시기만 해서는 필요충분조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노의 짐을 짊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피흘림과 죽음을 통해 속죄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흘림과 죽음을 통한 속죄와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이라야 합니다. 이러한 대속 또는 속죄의 개념은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은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인간의 죄를 어린 양이 대신했기에 사용한 표현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
> (이사야 53:6-11)

아기가 태어났어요

- 8교구 권영승 성도·유현주 성도 가정, 6월 13일(목) 딸 출산
(8교구 유형석 안수집사·제오복 권사 외손녀)

식사 제공

- 6교구 임종태 은퇴안수집사·이복희 권사 가정
(자녀 결혼 은혜 중에 마치고)

호두과자, 수박 제공

- 피택 권사, 피택 안수집사
(2024 홍해작전 승전감사)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3층, 혹은 뒷열에 주차 하기
2. 앞열 혹은 2중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70인 전도대 6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6.2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6.5	도르가, 루디아, 뵈뵈
6.9	자원자	바울, 엘리야	6.12	마리아
6.16	자원자	모세	6.19	한나, 에스더(오후 2-3시)
6.23	자원자	이삭	6.26	리브가
6.30	자원자	스데반회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6월24일	월	시 63–68
6월25일	화	시 69–72
6월26일	수	시 73–77
6월27일	목	시 78–79
6월28일	금	시 80–84
6월29일	토	시 85–89
6월30일	주일	시 90–95

맥체인 성경통독			
신29	시119:49-72	사56	마4
신30	시119:73-96	사57	마5
신31	시119:97-120	사58	마6
신32	시119:121-144	사59	마7
신33,34	시119:145-176	사60	마8
수 1	시120-122	사61	마9
수2	시123-125	사62	마10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한 여름 무더위를 몸과 마음이 평안과 강건함 가운데 이겨내며,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 닮는 성도 되게 하소서.

2. 서울교회 중직 피택자들의 훈련 과정에, 70인전도대와 파송선교지의 사역 현장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고, 4대담임목사님 청빙과정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함께 하소서.

3. 대한민국에 핵무기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평화가 오게 하시고, 북한의 복음화,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 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전도사
박미라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성선혜

◇ 협동목사
양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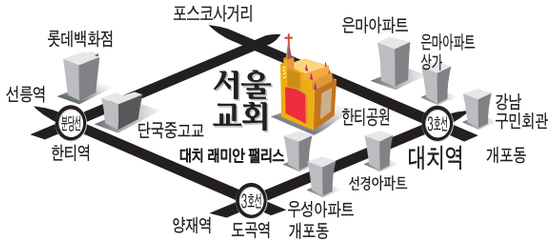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언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